

# 마들렌 비오네의 기하학적 패턴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신 미 진 · 박 선 경\* · 권 순 교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전공 석사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 요 약

패션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각 시대의 문화적 예술사조와 연관되어 형태적 특성을 공유하며 함께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세기 초 예술의 기하학적 형태는 패션에 있어 의상 실루엣의 변화를 가져왔고 예술 운동인 입체파, 미래파, 구성주의, 데 스틸(De Stijl), 바우하우스(Bauhaus) 등은 복식에 영향을 주었다. 또 현대의 여러 패션디자이너들은 예술과 기하학의 영향을 받았고 그 중에 예술과 기하학 논리를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최초의 디자이너는 마들렌 비오네(Madeleine Vionnet)이다. 비오네는 기하학적 패턴의 활용과 인체중심의 입체적 구성으로 패션에 새로운 조형성을 제시하고 형태면에서 평면과 입체를 적용하여 복식에 창조적인 모티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인간 체형을 주제로 인체의 자연스러운 미를 강조하며 패턴과 소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하학 패턴을 개발한 비오네의 작품을 고찰하고, 그녀의 패턴 구성에서 나타나는 조형성과 기하학적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의상 디자인을 창안하고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배경을 위한 문헌을 고찰하고 참고작품을 수집하여 정리, 분석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1920~1930년대 예술과 패션에 대해 연구하였다. 둘째, 기하학의 일반적인 고찰과 비오네 작품의 조형성, 비오네 의상에 표현된 기하학 패턴 구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셋째,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하학적 패턴 요소인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육각형을 응용한 패턴을 활용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주제어: 기하학적 패턴, 마들렌 비오네, 바이어스, 드레이프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2014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접수일: 2013년 12월 28일, 수정논문접수일: 2014년 2월 13일, 게재확정일: 2013년 2월 17일

교신저자: 박선경, pak27@kookmin.ac.kr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복식은 한시대의 정치·사회·문화·예술 등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그 시대의 미적 기준을 바탕으로 형태를 창출한다. 특히 예술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며 복식 전반에 무한한 영향을 주어 예술양식에 나타났던 조형의 형태나 색채는 복식에 공통된 표현기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복식은 예술의 변화와 함께 시대의 미적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사회적 배경에 따라 함께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20세기 예술의 기하학적 형태에 근거한 구조적인 경향은 의상 실루엣의 극단적인 변화를 불러왔으며 기하학적 패턴의 활용과 인체중심의 입체적 구성은 패션에 새로운 조형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창조적인 모티브를 제공하였다. 현대 패션에 있어 이러한 패션예술에 기하학적 논리를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디자이너는 마들렌 비오네(Madeleine Vionnet)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비오네는 기하학적 특성으로 입체감을 갖는 실루엣을 창출하였으며, 옷감의 각도를 돌려 전통 법칙을 깨는 바이어스 재단법을 의복에 적용시켜 보편화를 이루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손영화(2007)<sup>1)</sup>는 바이어스 재단 의상의 형태적 특성을 마들렌 비오네와 마담 그레의 작품을 비교분석하여 연구하였고, 유수경, 김의경(2002)<sup>2)</sup>은 마들렌 비오네의 작품에 나타난 기하학적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또 최진영(2010)<sup>3)</sup>은 클래식 패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들렌 비오네의 드레이퍼리 디자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하유선(2000)<sup>4)</sup>은 비오네 작품의 조형적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비오네에 대한 연구는 비오네의 드레이퍼리 이미지를 통한 작품연구와 비오네의 바이어스 재단이 주는 시각적 특징과 내재된 형태미 고찰, 또 비오네의 작품에 나타난 기하학적 특성의 이론적 고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오네의 창의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예술성과 기술력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기하학적 패턴에 의한 기하학적 조형미를 표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고정화된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인체의 흐름에 따른 소재의 조화를 추구하고 비오네의 패턴 구성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의상디자인을 창안하고 개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분석은 비오네의 작품과 관련된 국내·외 서적, 패션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논문, 패션잡지, 사진자료 및 인터넷 등을 참고로 한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서술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하학의 모티브가 되는 1920~1930년대 예술과 복식에 대해 고찰하고 기하학의 일반적인 개념과 예술에 나타난 기하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비오네 작품의 조형성과 비오네 의상에 표현된 기하학 패턴 구성에 대해 분석하고 그 패턴 구성기법을 바탕으로 총 8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제작을 위해 디자인 컨셉과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을 설명하고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육각형의 기하학 요소를 패턴에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작품 제작을 통해 얻은 결론을 서술하고 앞으로 고찰되어야 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기하학의 개념 및 예술에서의 기하학

인간의 조형 활동에 나타나는 형태의 종류를 분류하면 기하학적 형태와 유기적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현대의 표현 형태에서 가장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기하학적 형태는 예술과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표현된다. 기하학적 형태란 모든 시각적인 대상을 배제하고 대상과는 무관한 순수한 형태인 원, 삼각형, 사각형 등으로 간결하게 응축된 단순화 된 형태들이다.<sup>5)</sup> 기하학(geometry)이란 본래 "사물"의 형(shape)과 크기(size)를 취급하는 과학 혹은 공간의 수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로 정의한다.<sup>6)</sup> 이렇게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 기하학 형태의 기본인 원, 삼각, 사각의 도형들은 인간이 구현하는 예술 활동에 영감을 불어 넣고 더불어 시각적인 자극을 불러 온다.

기하학적 형태는 원시시대부터 예술작품에 등장했다. 당시 예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모습보다는 사물의 이념이나 개념, 본질을 포착하려고 하였으며 대상의 묘사보다는 상징의 창조에 주력했다. 이는 바위에 그려진 신석기 시대의 그림에서 사슴을 사냥하는 사람의 모습이 선과 삼각형, 원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sup>7)</sup> 이렇게 예술작품에 나타난 기하학적 형태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회화나 조각 등의 조형예술 분야에 다양하게 등장하였고 20세기 초에 나타난 중요한 예술운동인 입체파, 미래파, 구성주의, 데스틸, 바우하우스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기하학적 형태를 조형예술의 창조활동에 근원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이며 미



<그림 1> 기하학형의 사람 모습  
(출처: 『동양미술사』, 1993, p.523)

술사에서는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한 예술의 양식을 기하학적 양식이라 한다. 기하학 형태는 눈에 보이는 대로의 가시적인 형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지각된 개념의 변화, 단순화, 도식화에 의해 변형되어진 것으로 즉, 추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며 여기에 관념이 증가되어 조형 요소에 절대적인 가치를 더욱 부여하게 되었다.

## 2. 1920-1930년대의 예술과 패션

1920-1930년대는 아르데코의 예술사조와 독일의 바우하우스에 의한 기능주의가 더욱 발전한 시기이다. 아르데코의 색채는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강하고 뚜렷한 대비를 구사하였다. 아르데코의 구조가 형성되는 기본개념은 입체주의로 모든 대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구성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상의 형태를 사라지게 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갖게 한다. 이처럼 20세기 초 예술사조는 입체파와 데 스틸운동의 신조형주의, 그리고 바우하우스가 예술흐름을 주도하는데 이는 기하학적 형태와 추상적 표현을 창조하였다. 특히 독일에서 시작되어 이후 건축, 공예, 의상 등 현대적 디자인의 토대가 되는 바우하우스 운동은 입체파의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미학에 바탕을 두고 예술과 산업을 조화시켰다. 이와 더불어 다양하게 급변하는 정치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나 이집트의 이국적 문화는 원시 미술, 동양적 취향과 함께 조형적 측면에서 독특한 색채배합과 기하학적인 형태를 서구예술에 제공해 주었다.<sup>8)</sup>

이러한 20세기 초 예술양식을 배경으로 한 아르데코 패션양식은 보다 단순화된 장식예술을 배경으로 하고 동양풍의 디자인과 직선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당시 아르데코는 대중소비를 목적으로 한 큐비즘을 중심으로 색채 대비, 직선, 기본 형태의 반복, 지그재그선 등 기하학적인 형태를 특징으로 하였는데 패션에서도 역시 그

특징이 나타났다. 단순성에 입각한 구조적이고 건축적인 형태를 보이며 직선적인 복식미가 나타나고 여성의 몸을 구속했던 인위적 구조물에 의한 기존 복식의 탈피로 여성 해방, 더 나아가 인간 중심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의상을 표현하였다.

1920~1930년대의 사회적 배경은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20년대는 제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남성들의 자리를 여성들이 대신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의 생활양식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맞이한다. 여성들은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며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며 자유는 예술과 함께 의상에 반영되어 딱딱하게 조이던 옷의 형태가 흐르는 듯 한 편안한 의상으로 변화하였다. 확대, 축소, 과장, 장식적인 요소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작업하기 편리한 복장으로 변화되어 스커트 길이가 무릎까지 짧아지고 단순해지는 혁신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sup>9)</sup> 1930년대는 세계 경제 공황으로 인한 불황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직업여성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동시에 여성에게 종래의 전통적이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팽배되면서 슬림(slim)&롱(long) 실루엣의 우아하고 여성적인 복식미가 부활하였다. 부드러운 옷감을 사용하여 가슴과 허리의 곡선을 강조하였으며 허리선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러한 인체의 자연스러운 골격과 볼륨감을 강조한 다양한 시도는 의상이 단순히 기능적인 필수품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창작물로서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조형의상의 인식을 낳게 하였다. 또 전 후의 영향으로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이 동시에 나타나 패드를 넣은 어깨는 넓고 각이 졌으며 벨트로 허리를 조인 역삼각형 실루엣이 유행하였고 견장, 포켓, 라펠 등 군복의 장식적인 요소들이 응용되어<sup>10)</sup> 우아한 여성적인 실루엣

과 공존하였다.

### 3. 비오네 작품의 특성 및 기하학적인 패턴 구성

#### 1) 비오네 작품의 특성

비오네는 시대를 앞서가는 뛰어난 독창성과 예술적 재능으로 파리 의상계를 주도하였다. 인체미와 인체의 움직임에 해석을 두고 자유로운 표현과 그녀만의 개성적인 시도를 통해 의상의 조형성을 강조하고 창조적인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 의상디자인을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림에 큰 역할을 한 그녀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디자인의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어왔다.<sup>11)</sup> 고대 그리스에서 영감을 받은 고전적 이미지의 드레스를 현대적인 패션 감각으로 발전시킨 비오네의 20년대와 30년대 작품의 특징은 여성스러움의 표현이라는 기본적인 성향은 동일하나 조형적인 면에서는 대조적인 변화를 보였다. 20년대에는 라운드 넥(Round-neck), 브이 넥(V-neck), 보트 넥(Boat-Neck)과 같이 평면화한 단순하고 직선적인 실루엣의 기하학적 디테일의 조형미를 추구하고, 30년대에는 카울(Cowl), 할터넥(Halter-neck)으로 인체의 특징을 강조하거나 서클러(Circular) 또는 플레어(Flare) 스커트로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실루엣과 디테일로 보다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또한 당시의 다른 디자이너들처럼 새로운 유행의 경향을 만들어 내거나 화려한 꾸뛰르계의 조명을 받으려하지 않고 여성의 인체 특징을 강조한 조형적인 의상 제작에 전념한 파리 모드의 창조자로서 존재했다.

비오네는 여성의 신체에서 코르셋을 제거하였으며 어깨 패드를 포함한 모든 인공물을 제거하고 자연스런 인체 위에서 직물이 만들어주는 편안한 조형미를 추구하였다. 디자인스케치를 하지 않고 인체의 축소형 마네킹 위에 옷감을 두르고 직접

<표 1> 비오네의 조형적인 의상

비오네의 의상			
			
<그림 2> V-neck Dress (출처: 'Madeleine Vionnet', 1998, p.89)	<그림 3> Silky Dress (출처: 'Madeleine Vionnet', 1998, p.92)	<그림 4> Mobius strip Dress (출처: 'Madeleine Vionnet', 1991, p.121)	<그림 5> V-neck Dress (출처: 'Madeleine Vionnet', 1998, p.114)
			
<그림 6> Boat-neck Dress (출처: 'Madeleine Vionnet', 1991, p.204)	<그림 7> Cowl Dress (출처: 'Madeleine Vionnet', 1991, p.254)	<그림 8> Halterneck Dress (출처: 'Madeleine Vionnet', 1998, p.103)	<그림 9> Art Déco Design (출처: 'Madeleine Vionnet', 1991, p.195)

드레이핑하였으며 이러한 재능과 기술이 다양한 주름과 재단법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바이어스 커팅(bias cutting) 기법은 현대 복식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다주었다. 이 독창적인 기법으로 옷감은 더욱 섬세하고 치밀하게 여성의 인체에 입혀지게 되었고 바이어스 재단의 삼각형이나 마름모 조각들을 교묘하게 구성한 비오네의 드레스는 인체에 부드럽게 흘러내려 편안하게 입혀졌다<그림 2>. 또한 인체를 원통형으로 인식하여 입체적 실루엣을 추구하였고, 인공적인 구조물을 거부하고 오직 직물 자체로만 3차원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물의 기본적 형태를 기하학적 구조로 조직화함으로써 조형의 원초적 순수성을 회복하였다. 단순한 기능주의를 추구하여 바이어스 재단을 통해 삼각형, 원형, 사각형의 재단방식과 무 등을 활용하였고 입체과의 영향을 받은

단순성과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독특한 감각으로 의상의 형태를 재조합하였다. 실크 크레이프(crepe)<그림 3>, 저지(jersey), 툴(tulle), 머슬린(musline) 등의 가벼운 원단은 그녀가 즐겨 사용했던 소재였으며 벨벳(velvet)의 결 방향에 따라 나타나는 톤의 재질 자체를 디자인 효과로 활용하기도 했다. 또, 프린지(fringe)를 이용하거나 핀턱(pintuck), 파고팅(fagoting), 셔링(shirring), 피비우스의 띠<그림 4><sup>12)</sup> 등의 독창적인 기법을 구조적 재단과 대조적으로 연결시켰다. 비오네는 특유의 옅고 미묘한 색조를 잘 사용하는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다. 바나나<그림 4>, 이끼<그림 5> 등의 자연색 뿐만 아니라, 검정색, 장미색<그림 6> 등을 즐겨 사용하였고, 그라데이션<그림 5> 기법을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넥라인은 브이넥, 보트넥<그림 6>, 카울<그림 7>, 홀터넥<그림 8> 등의 다양한 변화



를 주었고, 문양은 아르데코 양식의 큐비즘의 영향으로<그림 9> 기하학적 문양과 그리스 화병에 도안된 문양 등이 활용되었다.

## 2) 비오네 작품에 나타난 기하학형의 패턴구성

비오네는 의상 착용의 주체인 인체를 평면의 구조로 파악하여 패턴을 구성한다는 것이 불충분함을 인식하고, 우아하고 역동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디자인을 위해 입체재단을 통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패턴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당시 새롭고 도전적인 형태의 의복이었다. 또한 자연스러운 인체 위에 소재 자체의 풍부한 표현성이 발휘된 의상을 만들기도 하였다. 비오네는 고대 그리스의 복식미의 표준을 찾아 현대 여성에게 소재와 인체의 참다운 조화를 제시하였으며 그리스 복식의 특성인 '조화'와 '균형'을 체계적인 패턴 구성을 통해 이루어 냈다.<sup>13)</sup> 그녀는 구성기법에 있어 기하학적 형태의 독창적인 재단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구성 방법은 기하학적 순수 도형의 평면적인 패턴을 3차원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사각형의 응용, 원형의 응용, 삼각형의 응용의 개념으로 의상에 적용하였다.

### (1) 사각형의 전개

사각형에 의한 디자인은 다트와 커팅선을 최소화하여 몸을 감싸도록 하는 재단방법이다. 비오네가 많이 의존한 직사각형 구성법은 그리스 복식이나 기모노의 평면적인 형식의 영향으로 다트를 최소화 하는 방식이다.<sup>14)</sup> 직사각형의 중첩을 통해 그라데이션 기법을 적용시켰고<그림 10> 이것은 자유롭고 유동적인 기능으로 나타난다. 행커치프(Handkerchief)드레스<그림 11>는 독특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곡선으로 여성스러움이 강조된다. 또 패널라인(panel line), 카울 등으로 디자인을 전개할 때 독특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고 활동성도 높은 디자인이 된다.

### (2) 원형의 전개

원형으로 다양한 입체적인 조형을 만들어 바이어스 재단된 소재들의 움직임에 조화로운 미적표현을 나타내었다. 비오네는 반원이나 1/4원, 3/4원 혹은 몇 개의 원형 패턴을 다양하게 의상에 적용하였다. 원형패턴은 인체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관점에서 인체에 흐르는 듯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drapery)를 통해 표현했으며 인체에 밀착시키는 디자인보다 편안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지는미를 표현했다<그림 12>.<sup>15)</sup> 래글런 소매 드레스(raglan sleeve dress)에 사용하여 소매나 밑단에 풍성한 볼륨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그림 13>. 이를 통해 행동의 자유로움과 우아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주었다. 원의 바이어스 재단한 원단은 중력으로 인해 생기는 변형의 단점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원단의 꼭지점과 양 가장자리를 벽에 편으로 꼴은 뒤 끝을 따라 추를 달아서 늘어나도록 하였고 이렇게 원단의 변형이 끝난 후에 드레스를 만들었다.

### (3) 삼각형의 전개

삼각형에 의한 디자인은 다트나 절개선 대신 삼각형 무를 끼워 넣는 방법이다. 이것은 조각이 인체에 밀착되어 다트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겨드랑이에서부터 생긴 여유분이 옷의 앞·뒷면 절개선을 가리는 독특한 디자인 선을 구성하였다<그림 14>. 다트와 절개선 대신에 삼각형 천을 추가하여 평면을 입체로 변화시키는 구성기법이 형성되므로 해부학적 커트(anatomical cut)라고도 한다.<sup>16)</sup> 원단의 삽입은 갑옷 밑에 입었던 튜닉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절개와 삽입<그림 15>을 적용한 독특한 이 재단법은 다트와 절개선 없이 입체적으로 디자인되어 모던함을 극대화하였고 이는 직물이나 장식이 아닌 옷의 재단에서 독창성을 보여줌으로써 비오네의 디자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표 2> 비오네 작품의 기하학적 패턴과 의상

비오네의 기하학 패턴과 의상			
<p>&lt;그림 10&gt; 직사각형의 패턴과 의상 (출처: 'Madeleine Vionnet', 1998, p.67)</p>		<p>&lt;그림 11&gt; 사각형의 패턴과 의상 (출처: 'Madeleine Vionnet', 1998, p.54)</p>	
<p>&lt;그림 12&gt; 원형의 3/4원 패턴과 의상 (출처: 'Madeleine Vionnet', 1998, p.91)</p>		<p>&lt;그림 13&gt; 원형의 1/4원 패턴과 의상 (출처: 'Madeleine Vionnet', 1998, p.87)</p>	
<p>&lt;그림 14&gt; 삼각형 무의 패턴과 의상 (출처: 'Madeleine Vionnet', 1998, p.146)</p>		<p>&lt;그림 15&gt; 삼각형 무의 패턴과 의상 (출처: 'Madeleine Vionnet', 1998, p.153)</p>	

### III. 작품 제작

#### 1. 디자인 콘셉트 설정

작품의 주된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비오네의 기하학적 패턴 응용을 통한 단순하고 입체적인 실루엣을 추구하고 기능성을 강조한다. 둘째, 전체적으로 톤 다운(tone down)된 컬러

사용으로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표현한다. 셋째, 인체에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소재를 통해 인체미를 드러내고 편안하면서 현대적인 느낌의 조형미를 추구한다. 이처럼 작품의 디자인은 우아한 여성미와 편안함이 고루 표출되는데 역점을 두고 비대칭의 유동적인 룩,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실루엣 등을 가미해 조형적인 디자인 요소를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또 입체적이고 구조적인 드레이프를 통해 아방가르드 실루엣을 표현하

고 상의와 하의 길이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 독창적인 패턴과 언발린스한 스타일링을 추구했다. 컬러는 그레이(gray), 화이트(white), 베이지(beige), 핑크(pink)를 중심으로 청정한 느낌의 은백색과 온화한 핑크, 누드 톤의 내추럴 컬러를 주로 사용했고 이러한 배색 조화를 통해 우아한 여성미와 편안함을 동시에 표현했다. 작품에 주로 사용된 소재는 레이온(rayon),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울(wool), 시폰(chiffon), 저지(jersey) 등 이다. 전체적으로는 소재의 경량감과 중량감을 적절히 조화시켜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표현하고 몸에 감기는 저지를 사용함으로써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조형미를 강조했다.

## 2. 제작 의도 및 방법

본 연구는 20세기 초 패션을 주도하였던 비오네의 기하학적 패턴이 적용된 작품 분석을 통하여 비오네의 예술적 재능을 살펴보고 작품 개발을 통해 기하학적 패턴을 응용하여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의 조형미를 재현해 보고자 하였다. 비오네의 기하학적 패턴은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 있어 지식과 영감을 주고 전통성에 입각한 인체의 자연미와 아방가르드적인 요소는 오늘날 패션계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고정화된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인체의 흐름에 따른 조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현대적인 조형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또, 바이어스 컷트를 이용해 인체에 부드럽게 흐르는 자연스러운 조형미를 추구하였다. 기하학 패턴 요소로 직사각형의 응용, 정사각형의 응용, 원의 응용, 삼각형의 응용, 육각형의 응용 패턴을 적용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디자인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구성은 드레스 1벌, 상의 3벌과 스커트 2벌, 바지 1벌, 상의와 바지가 연결된 원피스 1벌

등 총 8점을 실물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제작의도에 따라 응용된 기하학 형태와 소재 및 패턴과 디자인은 <표 3>과 같다.

## 3. 작품설명

작품Ⅰ의 블라우스는 직사각형 패턴을 응용하여 가벼운 소재와 절제된 디테일을 표현하고 한 장의 직사각형 패턴을 일직선으로 절개해 앞과 뒤를 접어 표현하였다. 앞쪽에 양쪽으로 자연스러운 셔링을 잡고 앞중심 트임에 삼각형 무를 덧대어 여유 있고 자연스러운 주름을 표현했다. 스커트는 직사각형을 응용하여 부드러운 색감으로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여러 사각형을 겹겹이 계단을 이루게 디자인하여 롱스커트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고 상의 블라우스와 매치하였다.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컬러는 회색과 옅은 핑크색과 짙은 핑크색의 그라데이션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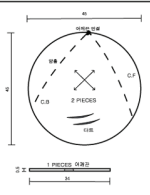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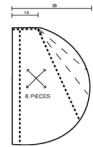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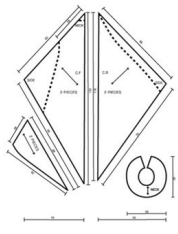


작품Ⅱ의 원피스는 비오네 의상에서는 없는 바지 패턴을 본 작품에 새롭게 디자인해서 바지와 상의를 한 장으로 연결하여 디자인했다. 상의는 육각형을 응용하여 카울을 표현하고 바지는 반원을 응용하여 디자인하고 충분한 여유분을 통해 활동성을 가미하였다. 상의와 하의 사이에 단추를 달아 분리해서 입을 수 있는 다용도의 원피스를 완성했다. 소재는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 혼방이며 컬러는 진주빛이 도는 회색, 옅은 핑크색으로 하였다.

작품Ⅲ의 상의는 비오네의 기하학 패턴 중에 정사각형을 응용하였으며, 패턴 2장으로 어깨의 주름을 잡아 비대칭으로 디자인했다. 어깨의 주름은 비오네 의상에서 볼 수 있는 고대 그리스풍의 옷을 응용하여 여성미를 강조하고 옆선은 셔링을 잡아 비대칭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조형미를 표현하였다. 하의는 사각형 패턴을 응용한 바지 디자인으로 밑단에 주름을 통해 심플하게 표현되는



<표 3> 작품 분석 및 패턴과 디자인

작품 I			
기하학 형태	 직사각형, 삼각형		
구성	블라우스, 스커트		
소재	폴리에스테르 		
컬러	회색, 옅은 핑크색	패턴	디자인
작품 II			
기하학 형태	 육각형, 반원형		
구성	원피스		
소재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혼방 		
컬러	진주빛 회색, 옅은 핑크색	패턴	디자인
작품 III			
기하학 형태	 정사각형, 사변형		
구성	블라우스, 바지		
소재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혼방 		
컬러	회색, 흰색	패턴	디자인

작품 IV			
기하학 형태	원형  , 반원형 		
구성	블라우스, 스커트		
소재	레이온, 울, 폴리에스테르 혼방 		
컬러	회색, 짙은 회색	패턴	디자인
작품 V			
기하학 형태	삼각형  , 원형 		
구성	원피스		
소재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혼방 		
컬러	회색, 짙은 회색	패턴	디자인

볼륨감을 나타냈다. 소재는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 혼방이며 컬러는 옅은 회색과 흰색으로 하였다.

작품IV의 블라우스는 비오네의 기하학 패턴 중에 원형을 응용하여 디자인했다. 그레이 바탕에 화이트, 블랙 컬러가 섞인 하운즈 체크(hound's-tooth check) 문양의 원단을 사용해 색감에 변화를 주고 기하학적인 디자인 요소를 부각시켰다. 스커트는 사각형을 응용한 비오네의 행커치프 드레스와 유사하나 원형을 활용해 더 우아한 실루엣을 나타냈고, 반원을 응용하여 앞에 3개의 반원과 뒤에 3개의 반원을 플레이어지게 하여 넉넉한 활동성을 가미했다.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울 혼방이며 컬러는 옅은 회색과 짙은 회색의 그

라데이션으로 하였다.

작품V의 드레스는 비오네의 기하학 패턴 중에 삼각형을 응용했다. 본 작품에서는 신축성과 중량감 있는 소재를 사용해 디자인에 무게감을 주었다. 앞판은 큰 삼각형 2장을 바이어스로 마주보게 연결하고 뒤판 또한 2장의 바이어스로 삼각형을 마주 보게 재단하였으며, 롱 원피스 드레스로 우아한 여성미를 강조하였고 등 뒤를 깊게 드러내어 디자인에 변화를 시도하고 여성의 인체미를 최대한 부각시켰다. 소재는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 혼방이며 컬러는 옅은 회색과 짙은 회색의 대비를 이루게 구성하였다.

## IV. 결론 및 제언

현대 패션에 있어 예술과 기하학 논리를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마들렌 비오네는 입체감을 갖는 실루엣과 함께 인체의 자연미와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패션 철학으로 개성적인 새로운 조형성을 창출해 냈다. 이처럼 마들렌 비오네는 의상디자인을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 올렸고 디자인을 통해 여성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녀의 기하학 패턴을 현대 패션에 적용하여 독창적이면서 편안한 디자인으로 재구성하여 총 5점의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사각형 패턴의 활용은 다트와 봉제선을 최소화하여 인체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주름으로 독특한 실루엣과 직선적이고 단순한 표현요소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었다.

둘째, 육각형의 패턴은 비오네의 기하학적 패턴에서 시도하지 않은 도형으로 여러 다각형의 응용 패턴을 통해 입체적인 표현이 무한히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비오네의 의상에 없는 바지 패턴을 새롭게 응용해 본 결과 원형과 사각형 패턴은 여유분과 밑위를 길게 하여 바지 패턴으로 활용이 가능하였다. 또 비오네 시대에 즐겨 입던 롱 드레스가 아닌 짧은 길이로 변화를 주어 현대에 맞는 편의성을 추구한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넷째, 직사각형으로 표현한 블라우스는 비오네의 기하학 패턴을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재 디자인한 것으로 드레이프가 가미된 의상에 있어 직사각형 패턴의 활용은 여러 각도의 다양한 디자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므로 그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삼각형 응용 드레스는 다른 패턴에 비해 율동적이며 바이어스 커팅을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주는 디자인 요소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오네는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그녀만의 독특한 패턴 기법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비오네의 기하학형의 패턴 구성방식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전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의 예술 양식은 시간이 흘러 사라지거나 잊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다시 반영되어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고정화된 의복의 평면적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체형을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의복을 다루었던 마들렌 비오네의 작품세계에 대한 고찰은 중요시되는 현대 의상디자인에 있어서도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오네의 바이어스 커팅과 같은 독창적인 기법과 기하학형의 패턴을 응용한 다양한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참고문헌

- 1) 손영화 (2007). 바이어스 재단 의상의 형태적 특성 : 마들렌 비오네와 마담 그레의 작품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유수경, 김의경 (2002). 마들렌 비오네의 작품에 나타난 기하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6), pp.763-780.
- 3) 최진영 (2010). 클래식 패션 스타일의 현대적 적용 : 마들렌 비오네의 드레이퍼리 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하유선 (2000). VIONNET 작품의 조형적 특징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권상구 (1988). 기초디자인, 서울: 미진사, p.165.
- 6) James & James (1986). Geometry Mathematics Dictionary, 3rd editio, p.162.
- 7) 마츠바라 사부로 (1993). 동양미술사, 김원동 외 옮김, 서울: 도서출판예경, p.523.
- 8) 채금석 (1995). 현대복식 미학, 서울: 경춘사, p.176.
- 9) 신상옥 (2005).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p.276.
- 10) 김영옥외 (2009).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서울: 경춘사, p.281.
- 11) 박선경 (1993). Madeleine Vionnet의 작품에 관한 연

- 구, 수원대학교 논문집, p.422.
- 12) Jacqueline Demomex (1991). Madeleine Vionnet,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p.121.
  - 13) 박현정 (2000). 마들렌느 비오네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 14) Betty Kirke (1998). Madeleine Vionnet,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LLC, p.46.
  - 15) 유수경, 김의경. 앞의 책, p.772.
  - 16) Betty Kirke. 앞의 책, p.142.

# A Study on Modern Fashion Design Applying the Geometric Pattern Formations of Madeleine Vionnet

**Shin, Mi Jin · Park, Sun Kyung<sup>+</sup> · Kwon, Soom, Kyo**

Maste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sup>+</sup>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 Abstract

Fashion has coexisted with art, being associated with the cultural art trend of each era by reflecting the flow of the times and shar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Fashion has changed with changes of art and aesthetic values of the times. The geometric form of 20th century art brought about a change of apparel silhouette in fashion and trends of cubism, futurism, constructivism and suprematism. Art movements such as De Stijl and Bauhaus influenced fashion. It was first designer Madeleine Vionnet who specifically applied arts and geometric logic to modern fashion. Vionnet used geometric patterns and presented formativeness to fashion with human-centered three-dimensional configuration and provided creative motifs with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for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nd develop modern apparel design by examining the works of Vionnet, who emphasized the natural beauty of the human body and developed creative geometric patterns based on knowledge on patterns and materials, and identifying geometric elements shown in the formativeness and pattern configurations of Vionnet.

Key words: geometric pattern, Madeleine Vionnet, bias, drape